

국가별 동향



방글라데시

양계산업 발전기금 추진

방글라데시 양계산업협회는 향후 10년간 1천억타카(한화 약 1조8천억원)를 양계산업 발전기금으로 조성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방글라데시에서 국민 1인당 연간 닭고기 소비량을 5kg까지 확대하려면, 연간 닭고기 생산량을 2010년까지 7천만톤, 2021년까지 9천만톤으로 늘려야한다. 이러한 생산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해당 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가 예산의 일부를 배정해야 한다고 협회는 밝혔다. (Asian Agribusiness)



태국

KFC, 온라인 주문 가능

KFC 푸드체인의 태국 경영업체는 방콕에서 온라인 배달주문 서비스를 개시했다. 120바트(한화 약 4,400원) 이상 주문시 배달은 무료다. 태국 KFC는 이를 위해 1천만바트(한화 약 3억7천만원)를 투입하여 소프트웨어와 홈페이지를 구축, 인터넷이 생활화된 젊은 소비층을 겨냥한 새로운 마케팅에 도전하고 있다. 태국 KFC측은 처음 석달 동안 3만건 이상의 인터넷 주문을 기대하고 있다. (Asian Agribusiness)



중국

식품안전법 시행, 위해식품 10배 보상

중국 당국은 최근 연이은 식품파동으로 인한 식품산업과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 추락에 제동을 걸기 위해 새로운 식품안전법을 6월 1일부터 시행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보다 엄격한 규정과 관리감독, 규정 위반 상품의 리콜제도, 법률 위반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이 적용된다. 특히 새로운 법에 의하면, 법에 정한 식품첨가제 외에는 어떤 것도 첨가하는 것이 금지되고, 그 어떤 식품도 안전검사를 면제받지 못하며, 위해식품으로 인해 손해를 받은 소비자는 10배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한, 식품의 광고를 한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 유명인사에게도 '공동책임'을 도입하여, 광고한 식품이 위해한 것으로 입증되면 광고에 출연한 연예인도 함께 처벌받게 된다. (Asian Agribusiness)



인도

ILDEX 축산종합박람회 개최

금년에 세 번째로 맞이하는 ILDEX 축산종합박람회가 7월 2~4일 인도 뉴델리 마이단 전시장에



서 개최된다. 양계, 양돈, 낙농은 물론 수산까지 총망라해 개

최되는 이번 박람회는 18개국에서 200여 업체가 참가할 것으로 보이며, 관람객만 해도 17,000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개최된 박람회에서는 17개 국에서 142개 업체가 참가, 12,000명의 관람객을 모은 바 있다. 인도는 양계 성장률이 육계는 15%, 채란계는 8%를 보이고 있으며, 세계에서 3번째 계란생산국이고 6번째 닭고기 생산국임을 자랑하고 있다. 2004년에 중동지역으로 48,582톤의 계란을 수출한 바 있으며, 수출량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ILDEX)



## 캐나다

### 가금산물 판매 13.1% 증가

최근의 한 통계보고에 따르면, 작년 한해 캐나다에서 판매된 가금산물은 전년도에 비해 13.1% 증가한 32억달러로 집계됐다. 가금육(칠면조 포함)은 전년도보다 15%가 증가한 24억달러가 판매됐다. 이는 가금육 120만톤에 해당하며,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닭고기로, 전체 가금육 판매의 85%를 차지했다. 계란 판매는 7.9% 증가한 8억2300만달러로 집계됐으며, 이는 약 70억개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Times Colonist)



## 미국

### 닭고기 가공공장 암모니아 가스 누출로 인명피해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가공공장에서 암모니아 가스 누출로 가공작업을 하던 인부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는 사태가 발생해 안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00명의 인부가 일하는 롬버브릿지 회사는 토요일 오전 20-30명의 인부가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작업도중 가스가 흘러나와 중독된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암모니아 가스는 가공과정에서 사용되는 연료로 누출이 될 경우 화재의 위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리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World Poultry)



## 일본

### 나고야 종합축산박람회 개최

일본 나고야에서는 오는 7월 8~10일 3일간에 걸쳐 종합축산박람회가 개최된다. 나고야 종합축산박람회는 양계와 양돈을 중심으로 개최되어 왔던 박람회로 2000년 초에 들어오면서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의 창궐로 인해 박람회를 무기한 연기시켜 왔다. 하지만 태국, 중국, 유럽 등 전 세계에서 지속적으로 박람회가 개최되어 오면서 일본에서도 전통을 살려 박람회가 부활시킨다는 차원에서 금년 새롭게 구상하여 개최될 예정이다. 최근 신종인플루엔자 등으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지만 박람회는 예정대로 개최될 예정이다. (JPA) 양계